

또 하나의 우리글 '훈맹정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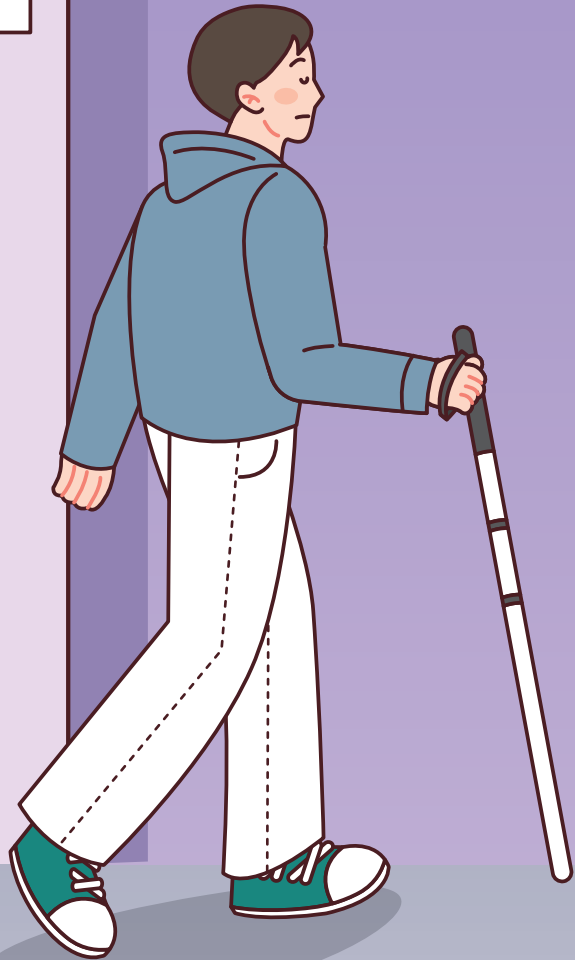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생활 속 점자표기
현황과 어려움은?



장애인정책리포트

월간 **한국장총** 2024.10.18. _ Vol.448

함께하는 회원단체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한국장루장애인협회, 한국한센총연합회,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한국장애인문화협회, 한국장애인기업협회,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장애인문화예술진흥개발원, 한국산재장애인협회,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인천광역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광주광역시장애인총연합회,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울산광역시장애인총연합회,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단체연합회, 충청북도장애인단체연합회, 충청남도장애인단체연합회, 전라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 경상북도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경상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단체연합회,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또 하나의 우리글 '훈맹정음'

글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안다혜

11월 4일은 '한글 점자의 날'로 지정되어 있다. 점자는 한글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고 있지만, 아직 공식적인 문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각장애인들은 학업이나 직장 내에서 필요한 자료와 문서를 즉시 점자로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점자를 표기한 장소가 부족하여,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다. 비용 등의 여러 현실적인 이유로 식품과 의약품에 점자 표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표기의 규정을 어기는 경우가 빈번하다.

본 정책리포트를 통해 전맹 시각장애인이 생애 주기별로 점자와 관련하여 겪는 어려움과 주요 요구사항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01 시각장애인과 점자의 이해

■ 시각과 시야에 따른 시각장애인의 정의

- **의학적 정의**는 일반적으로 시력과 시야에 의해 결정된다. 시력(visual acuity)은 사람이 볼 수 있는 명료도를 의미하며, 시야(visual field)는 눈으로 정면의 한 점을 주시하고 있을 때 그 눈에 보이는 외계의 범위를 의미함. 시력(중심 시력)은 시시력표(test chart)로 측정함. 시시력표는 시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여러 단계로 배열된 시표를 의미하는데, 시표에는 란돌트환시표(Landolt's ring), 스넬(Snellen) 시표, 아라비아숫자 시표, 자기 나라 문자를 사용한 시표, 소아용 도형시표 등 여러 가지가 있음. 예를 들어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는 스넬렌 시표로 시력을 측정할 경우, 가장 큰 글자를 200으로 정하고 가장 작은 글자를 20으로 볼 때, 20피트 거리에서 200에 해당하는 글자를 읽을 수 있으면 0.1이고 가장 작은 20에 해당하는 글자를 읽을 수 있으면 그 시력은 1.0임
- **장애인복지법 시행 규칙상**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인 자,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인 자, 두 눈의 시야가 각각 10도 이내인 자, 두 눈의 시각의 2분의 1 이상을 상실한 자로 정의하고 있음

■ 시각장애인 현황, 고령화 속 시각장애인 비율 증가

- 2023년 말 기준으로 등록된¹ 장애인은 총 2,641,896명으로, 이는 전체 인구의 5.1%에 해

당함. 그 중 시각장애인은 248,360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약 9.4%를 차지하고 있음. 특히,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65세 이상은 53.9%로, 고령화 시각장애인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전체 시각장애인 인구수	253	252	252	250	248
65세이상 시각장애인 인구수	129	132	134	137	139

출처:보건복지부(시·도장애인등록현황자료) [단위:천명]

■ 시각장애인의 유일한 문자 '점자'의 역사와 의미

- 점자는 시각장애인들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임. 점자는 문자 이상의 의미가 있음. 자신감과 독립성은 물론 사회생활의 동등권을 획득하는 시각장애인들의 유일한 의사소통 방법임. 한글 점자는 1926년 송암 박두성(1888~1963)에 의해 창안되었으며, 여러 차례의 수정과 보완을 거쳐 11월 4일 훈민정음과 음이 비슷한 '훈맹정음'이라는 이름으로 한글점자를 발표함

■ '점자법'의 등장, 어디서나 통일된 점자

- 2017년부터 시행된 「점자법」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통해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국가와 공공기관이 점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명시함. 이 법은 시각장애인이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점자의 제작과 표기 방식을 표준화함. 이는 점자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시각장애인들이 어디서나 동일한 방식으로 점자를 사용할 수 있게 함. 점

자의 크기, 간격, 배치 등 물리적인 표기 방식에 대한 명확한 규격이 정해져 있음

■ 시각장애인의 점자문맹 90.4%², 그 원인은?

- 점자는 시각장애인이 정보를 접근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중요한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를 배우지 못함. 그 이유는 무엇일까?

● 시각장애인에겐 어렵지만 한 영어-수학 점자 학습

- 점자는 어떻게 배울까? 비장애 아동들은 초등학교 입학 전에 이미 가정이나 교육기관에서 한글뿐만 아니라 간단한 영어와 수학을 배우곤 함. 초등학교 입학 후에는 본격적으로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밟음. 그러나 **시각장애 아동들은 한글 점자조차 익히기 어려운 상황에서 영어와 수학 학습은 도전임**

- 시각장애인들의 경우, 점자는 손가락 감각으로 글을 읽기 때문에 '촉지 훈련³'에 긴 시간이 필요함. 선천적 시각장애인은 수업을 통해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목표로 하며, 점자를 배우는 데 짧게는 6개월에서 몇 년까지 걸리기도 함. 이 점자를 배우기 위한 교육 기관은 국가 차원에서 제공되지 않아, 부족한 교육 공급을 맹학교나 시각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채우고 있음

- 영어의 경우, 기본적으로 알파벳 문자와 점자를 함께 익힘. 알파벳 점자를 익히기 위해서는 대문자와 소문자의 점형 차이, 그리고 100여 개에 달하는 약자를 외워야 함. 이 과정을 거친 후에야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와 같은 영역별

학습이 가능해짐

- 수학은 기호와 부호의 문자와 점자를 익히는 것이 필요함. 입체도형이나 그래프 같은 이미지는 촉지로 만져보거나 머릿속에서 상상하면서 개념을 이해해야 함. 이는 비장애인보다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함

● 시각장애 아동의 점자 공부는 노잼! 점자교육, 필수일까, 선택일까?



[사진] 두맘, 미니 점자촉각책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관계자에 따르면, 유년기 때는 한글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요소가 존재함. 예를 들어, 퍼즐이나 자석 같은 도구를 사용하면 흥미를 더욱 끌어올릴 수 있음. 그러나 점자는 한글에 비해 재미있는 요소가 부족함

- 또한, 학년기에는 점자 교재가 다른 학생들에 비해 늦게 보급되는 문제가 있음. 점자로 된 학습지는 충분하지 않고, 비장애인 학생들과 비슷한 시기에 받아볼 수 없어 불편함

2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3 촉지(觸知)는 촉각을 통해 사물이나 환경을 인지하는 것을 의미함. 손이나 피부로 물체를 만져서 그 모양, 질감, 크기 등을 알아차리는 감각임



- 과거에는 시각장애 특수학교에서 점자 교육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졌음.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서 학습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기함. '어느 정도의 시력이 남아 있는데 점자를 배울 필요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자를 배우는 이유가 뭐냐'는 말이 있었고, 그 이후 시각장애인 특수학교에서 점자 교육이 선택적으로 변화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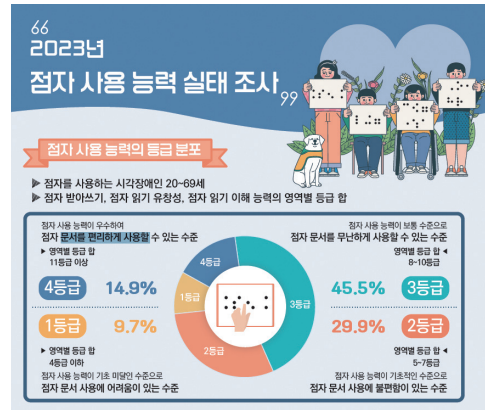
❖ **젊은 시각장애인은 필수인 점자, 고령층은 접근부터 어려워**

- 2023년 말 기준으로 새롭게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65세 이상의 비율이 50%를 넘음. 이들은 새로운 기술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고령층은 점자 학습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해 학습에 대한 의지가 낮은 경향을 보임. 반면, 사회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젊은 시각장애인들은 점자 학습이 생활에서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더욱 크게 나타남

- 또한 보건복지부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의 75.9%는 후천적으로 장애를 겪음. 후천적 시각장애인인 경우,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시력이 감소하고, 감각신경의 이상으로 손끝의 감각이 둔해져 점자를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이로 인해 점자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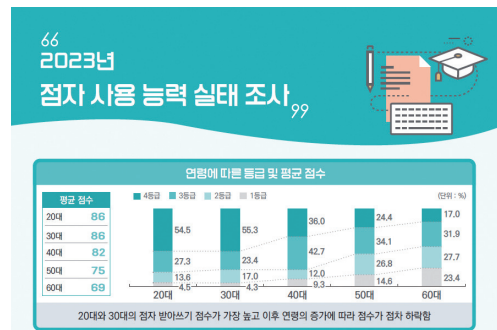
❖ **20대는 최고, 60대는 최저! 연령별 점자 사용 능력의 차이. 고령층의 새로운 점자 교육 필요**

- 국립국어원은 장애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 중 점자를 사용하는 301명을 대상으로 점자 받아쓰기, 점자 읽기, 유창성 읽기 이해 능력 등을 조사함



[사진2] 국립국어원, 점자 사용 능력 실태조사 결과

- 조사결과, 점자 사용 능력이 '기초'로 점자 문서 사용에 불편함은 29.9%, '기초 미달'로 문서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비율은 9.7%임. 점자로 된 문서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인 '우수'는 14.9%고,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보통'은 45.5%로 나타남



[사진3] 국립국어원, 점자 사용 능력 실태조사 결과

- 연령별 사용 능력의 차이를 살펴보면, 받아쓰기 점수의 경우 20대와 30대 모두 86점으로 가장 높고, 이후 연령의 증가에 따라 점수가 점차 하락함. 점자 읽기 이해의 경우 20대의 점자 읽기 이해 점수는 74점으로 가장 높고,

30~50대는 유사하며 60대는 50점으로 가장 낮음

- 이는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 특히 65세 이후 중도 시각장애인이 된 일부 노인들의 경우, 점자 학습에 대한 의지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시사됨.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시각장애인들의 점자 교육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줌

02 손끝으로 펼치는 인생, 시각장애인의 점자 히스토리⁴

Q 학령기 시절, 점자로 학습하는 과정은 어땠나요?

- 놀이로 점자 독해 능력, 촉각 능력도 상승했어요.

동진



[사진3] 알파벳 모양의 과자로 학습

- 생후 9개월에 망막에 종양이 생겨 3살에 완전히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7세가 될 때 맹학교 유치원에 입학하게 되었고, 점자 학습을 별다른 어려움 없이 마쳤습니다. 유치원에 입학 전 일반 활자를 형상화한 자석으로 한글 자모와 알파벳, 숫자를 생활 속에서 놀이의 형태로

학습했습니다. 한글 자모와 알파벳 모양의 과자를 간식으로 먹으면서 기초문자를 배웠고, 이는 점자 습득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글 자모의 구조인 초성, 중성, 종성을 이해한 후, 그 형태를 점형으로 변환하여 학습하니 이해하기가 수월했습니다. 자석이나 과자를 만지면서 글자를 생각해 보는 과정에서 촉각 능력도 발달했습니다. 덕분에 점자 독해 능력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 점자 카드놀이는 비장애인 친구들과 함께했던 나의 어린 시절 기억이 나오.

동진



[사진4] 표면에 점자가 찍혀 있는 트럼프 카드

- 동네의 비장애인 친구들과 형, 누나들과 함께 다양한 놀이를 하며 지냈기 때문에 초등학교 시절까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는 윗놀이, 카드놀이, 부루마블과 같은 보드게임에 점자를 추가해 시각에 구애받지 않고 비장애인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다양한 놀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이 없었다면 비장애인 친구들과의 관계 형성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한 가족의 신뢰가 매우 중요합니다. '시각장애가 있으니 할 수 없을 것'

⁴ 후천적 중증 시각장애인(20대 직장인 이동진(남), 한혜경(여)) 두 명과 인터뷰(2024년 9월26일~10월 7일) 내용을 정리함

이라는 생각보다는,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지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머니를 포함한 몇몇 선후배 어머님들은 시각장애 자녀들을 위해 점역교정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공부하였고, 일반 활자로 된 책과 놀이기구, 보드게임 등을 제작해 학업과 교우 관계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 미국에서 촉각 그래프로 공부했어요.

- **해결** 미국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절을 보냈을 때, 점자를 손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설계된 '퍼킨스 브레일 라이터'라는 기계를 사용했습니다. 이 기계는 무게가 약 2kg 정도로 꽤 무거워서 휴대성이 좋지 않고, 사용 시 소음도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은 과목별로 교실을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이 점이 더욱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빠르고 정확한 점자 표기 덕분에 점자 읽기와 쓰기 모두에서 큰 이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 또한, 미국에서는 촉각 그래프 및 도형 도구를 활용해 시각장애인들이 손으로 만져 그래프와 도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수 재질의 용지나 필름 위에 돌출된 선이나 점으로 도형을 표현해 세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그래프와 도형의 표현에서 세밀도가 떨어지고, 종종 중요한 내용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험난했던 대학 수업, 쉽지 않았어요.

- **동진** 교수님들의 강의 방식에 따라 PPT, 한글과일, PDF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가 사용되거나, 강의마다 인쇄된 자료로 수업이 진행되기

도 합니다. 인쇄된 자료는 동시에 점역할 수 없기 때문에 강의를 따라가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신간 도서의 경우 점역된 자료가 없어 강의 내용과 점역 교재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죠. 특히 표나 그래프가 많은 교재에서는 내용이 생략되거나, 표를 해석하여 설명하는 방식으로 점역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가독성이 떨어지고, 표의 그림 설명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아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필수 교육 과정인 초등 및 중등 교육 교과서는 표와 그래프를 전문적으로 점역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고등 교육 과정인 대학 수업은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장애학생 지원센터와 각 학교의 지원에 따라 교재의 질이 다릅니다. 시각장애인이 재학 중이라면 점자 프린트가 가능한 그림 인쇄기를 갖추거나, 점자 프린터기가 구비된 기관에 요청하여 필요할 때 신속하고 정확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일상생활에서 점자를 사용하는 순간이나, 점자로 인해 불편했던 경험이 있나요?

❖ 캔 음료 속 점자 미스터리, 혼란 투성이예요.

동진



[사진5] 모든 음료를 '탄산'으로 표기

(출처: <https://www.khan.co.kr/economy/market-trend/article/201707031508001>)

- 「점자법」이 제정된 이후 많은 기업들이 상품에 점자 표기를 추가하고 있지만, 음료수 캔이나 팩 음료, 주류 등에는 여전히 점자 표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탄산음료에는 ‘탄산’이라는 점자가 표기되긴 하지만, 수십 가지 종류의 탄산음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표기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탄산음료는 점자에서 4칸을 차지하지만, ‘사이다’는 3칸만 필요합니다. 맥주에는 ‘맥주’라는 점자가 표기되어 있지만, 캔 커피에는 점자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자의 오류나 미비는 시각장애 소비자가 캔 음료를 구매하는 데 혼란을 초래합니다. 또한, 재활용 용기를 사용할 때 점자 표기를 무시하고 재포장하는 경우도 있어, 내용물과 점자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각 기관에는 점자를 읽고 쓸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하고, 완제품에 대한 점자 검수 과정을 추가해야 합니다.

✔ 출퇴근길에 지하철 스크린도어, 광고판과 매일 숨바꼭질 중입니다.

동진



[사진6] 스크린도어에 설치된 점자
(출처: <http://www.kbufac.or.kr/Board/News/Detail?ContentSeq=1795&Page=186>)

- 지하철 스크린도어 위치 표시 또한 점자를 많이 사용합니다. 점자 표시가 규격화가 되며 스크린도어 칸의 점자표기는 대부분 보편화되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지 않은 역사나 광고판 때문에 점자 파악하기 어려워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점자를 사용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 점자는 즉각적으로 정보를 알 수 있어요.
저에게 점자는 필수입니다.

- **혜경** 점자는 정보를 즉각적으로 전달하고 인식하는 데 매우 높은 신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장애인들도 오디오북을 많이 활용하지만, 오디오북은 시각적 정보 전달에 한계가 있으며, 집중도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글을 눈으로 읽는 것과 귀로 듣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듣는 것을 주로 하는 시각장애인과 점자를 사용하는 시각장애인은 정보 처리는 확실히 다릅니다.
- 예를 들어, 맞춤법의 경우 "가방을 매다"에서 '매'와 '메'의 구분은 직접 읽지 않으면 알기 어렵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의약품 정보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은 점자를 통해 이 약이 먹는 약인지 바르는 약인지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가전제품에서도 음성 안내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세탁기에서 "왼쪽에서 3cm가 전원 버튼"이라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버튼에 점자로 '전원' 또는 '동작'이라고 표기해 두면 모든 버튼의 위치를 외우지 않아도 기능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 대합실이나 난간에도 점자가 적용되면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데 즉각적인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이유로 점자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점자가 없는 물건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 점자가 없는 물건에 점자 라벨 작업, 간단해 보이지만 꽤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 **해경** 점판에 모택시지를 끼워 텍스트를 입력한 후, 화장품 종류나 식품의 유통기한을 점자로 작성해 직접 오려 붙이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는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 혼자 하다 보면 실수를 하기도 쉽습니다. 예를 들어, 의약품에 화장품 스티커를 붙이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약품이나 식품처럼 중요한 제품에는 반드시 점자가 필요합니다.
- 또 다른 점자 라벨기로는 '6Dot'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100만 원 이상의 고가 제품으로, 휴대성이 뛰어나지만 잔고장이 잦고, 줄 같은 소모품을 자주 교체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Q 점자 사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점자는 자립적인 생활에 큰 도움을 줍니다.

- **해경** 최근, 카드에도 점자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생활을 생각할 때, 점자를 배제하고는 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카드번호나 관련 정보들을 모두 음성으로 들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점자를 알면 카드를 보고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각장애인들이 "점자가 어렵기 때문에 배우지 않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점자를 배울 수 있는

동기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65세 이상이든 그보다 적든, 개인의 생활을 좀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 점자 교육은 필수적입니다.

- 노년기에도 카드번호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은 동일합니다. 또한, 의약품의 경우 유통기한이 점자로 표기되는 경우도 있어 점자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됩니다. 여가 활동에서도 시각장애인이 즐길 수 있는 보드게임인 '뉴피퍼'와 같은 게임이 있으며, 점자는 단순히 정보를 읽는 수단을 넘어 생활 전반에서 자립적이고 풍부한 삶을 지원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 한글만큼 중요한 점자,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동진**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창제하여 반포하신 것과 같이 박두성 선생님께서 창제하신 한글 점자를 하나의 글자로 인식하고 선택사항이 아니라 한글, 영어, 숫자를 제공하듯 생활 속에 점자를 포용할 수 있는 사회 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3 점자 사용 환경, 어떻게 달라져왔나

■ 점자와 제도 변화, 한 번에 살펴보는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① 대한항공,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브리핑 카드 도입하다

- 2015년 7월부터 대한항공은 에어부산, 아시아나항공에 이어 점자 브리핑 안전카드를 제공함. 비행기 이륙 전 항공사는 승무원의 시범, 영상자료, 리플릿으로 기내 안전수칙을 설명하지만, 시각에 의존한 설명으로 시각장애인들은 정보를 동등하게 얻지 못함. 이는 기본권 침해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브리핑카드가 필요함. 에어부산과 아시아나항공만이 제공하던 점자카드를 대한항공도 도입하여, 비상구 위치와 비상장비 사용법 등을 포함한 점자 안전브리핑카드를 제공함

② 보이지 않는 돈, 점자와 QR코드로 시각장애인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지키다

- 상품권은 발행자, 권면액, 유효기간 등의 중요 정보를 표기하도록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라 제작되고 있음. 그러나 크기와 재질에 대한 기준이 없어 시각장애인들이 상품권을 구분하거나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임. 만약 상품권을 받았는데, 얼마짜리인지, 발행처와 사용처가 어디인지,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알 수 없다면 사용할 수 있을까? 상품권은 소멸시효 5년이 지나면 발행자에게 낙전 수익으로 돌아감. 시각장애인들은 상품권에 점자 표기나 크기 구분이 없어 금융사기에 노출되기 쉽고, 물품 구

매 시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움. 이에 따라 2017년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을 통해 지류형 상품권 점자 표기 외에도 QR코드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함. 2019년 개정된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라 점자 표기와 QR코드 표시로 시각장애인들도 상품권의 가액, 유효기간 등의 정보를 알 수 있게 됨

③ 마모되는 스티커 대신, 시각장애인의 복지카드에 양각 각인해라!

- 시각장애인이 복지카드를 신청할 때 점자를 요청하면 투명 PVC 필름으로 된 점자 스티커가 부착됨. 하지만 이 스티커는 쉽게 마모되어 중요한 정보를 식별하기 어려움. 이에 시각장애인이 복지카드를 신청할 때 양각 각인을 요청함. 복지카드에는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에게 신분증 역할을 하며, 공공요금 할인과 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카드임. 점자 스티커가 마모되면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음. 반면, 문화누리카드나 일부 금융카드는 양각 각인되어 있어 정보 식별이 쉽고 마모될 염려가 없음. 모든 카드에 양각 각인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복지카드에는 반드시 적용될 필요가 있어 요구함.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등록증의 주된 용도가 타인에게 보여주는 것임을 강조하며, 양각 각인을 적용하기에는 공간적 제한이 있다고 밝힘. 문자 표기 여백을 활용하고 점자의 최소규격 및 표기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장애인등록증’ 표시와 카드 번호 16자리를 모두 양각 각인하기 어렵다고 말함. 특히 금융카드형 등록증은 칩등이 포함되어 있어, 점자 표기 공간이 더욱 제한적이라고 답함



▶ 점자 강화되는 점자 사용 환경

● 점자 교원 양성하고, 17개 광역시 시도에 점자 교육원 설치

- 3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회관계장관 회의에서 ‘제2차 점자발전기본계획(2024~2028)’을 발표함. 점자교원 자격제도와 점자 능력 검정제도의 도입을 위한 연구, 시행령 개정, 제도 도입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힘. 또한, 2024년에 점자교육원 6개소를 신규 지정하고, 2028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1개소씩 점자교육원을 지정할 계획을 발표함. 그 밖에 디지털 환경에서 시각장애인의 원활한 정보 접근을 위해 디지털 점자 기술 개발도 추진할 예정임
- 문체부는 2028년까지 1,350만 어절의⁵ 목자 점자 말뚝치를 구축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 점역 기술 개발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발표함

● 의약품 정보 점자로, 7월부터 필수 적용!



[사진] 점자표기를 병행한 제약업체의 제품

- 7월부터 시행된 ‘약사법’ 개정안에 따라 의약품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 의무화는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소비

자들이 의약품 정보를 접근하기 쉽게 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임. 이에 따라 의약품의 용기, 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점자 표기와 더불어 음성 및 수어로 변환이 가능함. 시각장애인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독립적으로 의약품을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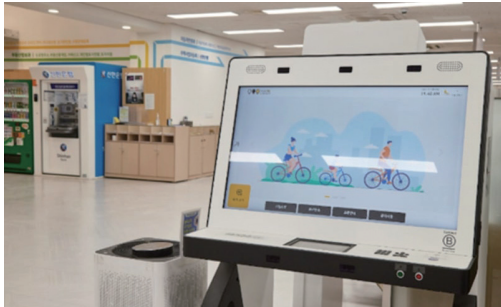
● 시각, 청각 장애인 화장품 안전사용 ‘점자 등 코드 표시 의무화’ 추진

- 9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화장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함. 이 법안은 시각, 청각장애인이 화장품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얻고 안전하게 구매 및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 현행법에 따르면, 화장품 용기 또는 포장에 제품의 명칭과 영업자의 상호를 점자로 병행 표기할 수 있음. 그러나 다른 중요한 상세정보에 대해서는 점자 표기에 대한 의무가 없어, 시각장애인이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을 사용하거나 잘못 사용하는 등 오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의 여지가 있음
- 김 의원은 “시각, 청각 장애인이 소비자로서 충분한 자기결정권을 누리며 안전하게 화장품을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함”이라며, 이번 개정안에서는 점자뿐만 아니라 음성, 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 표기를 의무화했고,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함

5 점자에 상대하여 비시각장애인이 쓰는 일반 활자를 이르는 말

04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는 민간의 노력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등장!



[사진8] 공공기관에 닷이 개발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모습

-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의 '유니버설디자인 종합계획'에 따르면, 모든 시민이 성별, 나이, 국적, 장애 유무 등에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유니버설 디자인을 사회 전반에 상용화하려는 계획을 밝힘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25년 1월부터 시·청 각장애인들을 위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함
- 이에 주식회사 '닷'이 개발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서비스와 맞춤형 키패드, 촉각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글자와 이미지 등을 제공함

❖ 서울우유와 오투기, 점자로 편리함을 더하다!



[사진9] 오투기 [사진10] 서울우유협동조합

- 오투기는 지난 2021년 컵누들 김치·얼큰 쌀국수'를 시작으로, **컵라면 전 제품에 점자를 95%가량 확대함.** 컵라면의 물 붓는 선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토대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협조를 받아 점자 위치 및 내용, 가독성 등을 검토 후 도입됨. **오투기가 판매하는 컵라면 제품의 용기 겉면은 제품명과 물 붓는 선,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여부를 나타내는 기호가 점자로 새겨져 있음.** 저시력 장애인이 점자 위치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점자 배경은 검은색, 점자는 흰색으로 인쇄한 것도 특징임
- 서울우유협동조합은 2023년 4월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과 취식 편의 제고를 위해 점자 및 노치 표기를 확대함. 점자 및 ⁶ 노치 표기 제품 수를 점차 늘려 나간다는 계획임



⁶ 지봉형 종이팩 상단 일부의 한 곳을 반원형으로 도려낸 표시

❖ 화장품 정보도 점자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뷰티 브랜드



[사진11] 닥터지(D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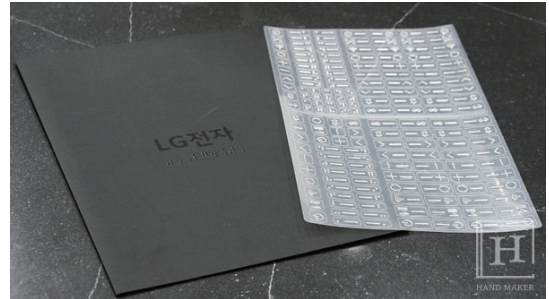
- 더마코스메틱 브랜드 ‘닥터지(Dr.G)’와 고운 세사코스메틱은 2012년부터 전 제품 단상자에 점자 표기를 위한 점자 형압을 적용함. 지난 2022년부터는 제품 용기에도 점자 표기 확대를 적용하고 있음



[사진12] 아모레퍼시픽

- 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 생활용품 등의 제품을 붙여 사용할 수 있는 점자 스티커를 제작해 무상으로 배포함. 이 점자 스티커는 스킨, 로션, 샴푸, 등 10가지 카테고리를 점자로 표기함. 이 외에도 알파벳이나 숫자가 양각 처리된 기호를 포함해 점자를 읽지 못하는 사용자도 이용에 불편함 없도록 제작함

❖ 가전제품의 혁신적인 접근, 가전도 점자로 쉽게!



[사진13] LG전자 공용 점자스티커

- LG전자(대표이사 조주완)가 누구나 손쉽게 가전을 사용하도록 돕는 ‘LG 콤포트 키트 (Comfort Kit)’를 출시함. LG 콤포트 키트는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IFA 전시회에서 처음 공개돼 주목받았던 ‘유니버설 업 키트’의 공식 명칭임. 이 키트 중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실리콘 ‘에어컨 리모컨 커버’가 있어 어떤 버튼인지 바로 알 수 있음

- 요즘 가전 제품들은 양각 처리가 되지 않은 LED 터치 형식으로 출시되어 기능뿐 아니라 버튼의 위치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려워 시각장애인들은 화상뿐만 아니라 시간이 오래 걸림. 그러나 LG전자는 모든 가전에 부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용 점자 스티커를 자체 개발하여 무상 배포함

- LG전자는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가 제품이나 솔루션 이용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접근성을 고려함

❖ 시각장애 아동·가족과 특별한 점자 페스티벌!



[사진14] SK행복나눔재단

- SK행복나눔재단(이사장 최기원)은 '세상과일 시각장애 아동 점자 문해력 향상 프로젝트'와 '시각장애 아동 보행 교육 프로젝트'를 통해 시각장애 아동들에게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점자 및 보행 교육을 제공함
- 지난 10월, 시각장애 아동들이 가족 및 또래들과 함께 야외 활동을 즐기며 점자 학습과 보행 훈련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점자/보행' 테마 프로그램을 진행함. 이 페스티벌에서 시각장애 아동과 가족 100여 명이 버스 체험, 보행 코스, 점자 글짓기, 점자 카드 만들기, 골볼 게임, 부모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함

것이 아닌, 아동이 흥미를 느끼고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놀이 형태의 도구가 필요함

- 예를 들면, 점자와 관련된 촉각 교구, 알파벳 점자 블록, 촉각 도형 판, 소리와 진동으로 피드백을 주는 점자 교구 등은 시각장애 아동들이 단순히 손가락 끝으로만 점자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점자 학습에 있어 모든 감각을 활용할 수 있음

■ 학교 내 점자 자료·보급·점역 품질 점검 확대해야

- 점자는 단순 읽기와 쓰기를 넘어서, 세상과 소통하고 지식을 쌓는 필수적인 도구임. 하지만 현재 시각장애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점자 교재는 매우 제한적이며, 그로 인해 학습 격차가 발생함

2018년 (7개소)	서울(1),인천(1),경기(1),충남(1),대전(1),대구(1),부산(1)
2019년 (8개소)	서울(2),인천(1),대전(1),대구(2),전남(1),부산(1)
2020년 (7개소)	서울(3),경기(1),대전(1),전남(1),대구(1)
2021년 (7개소)	서울(2),경기(1),대전(1),대구(1),전남(1),광주(1)
2022년 (6개소)	서울(2),대전(1),세종(1),전남(1),대구(1)
2023년 (7개소)	서울(2),인천(1),대전(1),전남(1),대구(1),광주(1)

점자출판물 제작·보급 지원 기관 지역 현황('18년~'23년)

05 점자 사용 환경 개선의 길, 생애주기별로 더 나은 세상을 향해

■ 아동기, 점자 조기 교육 프로그램 도입해야

- 시각장애 아동들에게 점자는 세상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중요한 수단임. 그러나 점자 학습은 그 과정이 다소 지루하고 어려워 학습 동기를 잃기 쉬움. 점자 학습이 단순히 글자를 외우는

- 점자 출판 시설이 감소하고, 지원이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되어 지방 시각장애인들이 점자 출판물 접근에 어려움을 겪음. 지역 점자 출판 시설이 해당 지역사회 맞춤형 점자 출판물을 제작하고 점역 품질 점검이 필수임

■ 모든 생애주기 배리어프리 점자 시스템 강화해야

-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모든 생애주기에서 점자를 통해 정보를 접근하고 학습하며,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함. 하지만 현재 점자 시스템은 교육 분야나 일부 공공장소에서만 적용되고 있어 **일상 생활에서의 정보 접근에 많은 제약이 따름**
- 성인기와 노년기의 시각장애인들이 직장이나 가정, 공공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배리어프리 점자 시스템을 확대해야 함
- 예를 들어, 가전제품이나 일상 생활용품에 점자 표기를 의무화하고, 식료품 등의 포장에도 점자를 표시하여 시각장애인들이 쉽게 정보를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함. 또한, ATM기기, 키오스크 등의 공공시설에도 점자를 도입하여 시각장애인들이 혼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 노년기에 후천적으로 시력을 잃는 시각장애인들이 증가하는 추세임. 이들을 위한 점자 재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의약품이나 건강 보조제와 같은 필수 물품에 점자를 더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함. 특히 크기가 큰 점자 포맷을 제공하여 손끝의 감각이 둔해진 노년기 시각장애인들도 쉽게 점자를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함



월간 **한국장총** www.kofdo.kr

발행일 2024년 10월 18일 발행인 김영일 편집인 김동범 창간일 1999년 3월 29일

제 작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4층 T.(02)783-0067 F.(02)783-0069

※ 이 인쇄물의 오른쪽 윗부분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보이스아이)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장애 시민의 일상을 공유하고,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복지TV YouTube

장애인 아고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장애인 아고라'를 통해 2016년부터 다양한 개성의 장애당사자들을 패널로 섭외하여 일상생활 경험을 나누고, 변화가 필요한 지점을 알리고 있습니다.

장애를 극복한 사람이나 장애로 고통받는 사람이 아닌 동시대를 살아가는 장애시민들의 일상을 함께 나누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과 환경을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장애인 아고라'는 복지TV 방송과 youtube 장애인아고라 채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